

TEAM PROJECT 활동 계획서

I. TEAM PROJECT 목적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Where River and Ocean Meet'임. 프로젝트 이름(팀명)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팀이 주로 활동하게 될 호주의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지형적 특성상 강(네랑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임.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음.

1. 한국인이 새로운 세계를 만남

이 프로젝트가 주로 행해질 곳은 위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Gold Coast임. Gold Coast라는 지명의 유래는 따로 있지만, 지형적 특성을 탐구하였을 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점점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음. 따라서 지명의 특성을 살려 한국인인 팀원들이 호주라는 새로운 곳へ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현장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음. 또한, 연수를 위해 사전 조사하는 내용들은 연수 및 팀 프로젝트를 몸 안으로 효율적으로 흡수시킬 원동력이 될 것임. 결국, 새로운 곳へ 간다는 것을 통해 자기 주도적 준비와 시행은 호주가 아닌 다른 외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 시에도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원활하게 하게 해줄 것임.

2. 팀원들의 학습의 연장선 및 새로운 학습의 디딤돌

가. 학습의 연장선

이 프로젝트는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처럼 짜여진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직접 현지를 알아보고 계획하여 팀원들만의 목적지를 두고 움직이는 것임. 따라서 장소의 이동, 식사, 숙박 등을 모두 스스로 계획하게 됨.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 현지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알아보고 직접 타봄으로써 우리나라와 어떤지 비교할 수 있고, 이러한 비교는 양국의 교통 체계가 어떤 보완점을 가져야 할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됨.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먹어봄으로써 타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지금껏 배운 것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됨.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팀원들끼리 관광이 아닌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나. 새로운 학습의 디딤돌 (해양 도시 및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탐구)

Gold Coast는 지명에 맞게 해양과 관련이 깊은 도시임. [붙임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해양 도시로서 해변이 늘어서 있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서퍼들의 장소이기도 함. 이곳에서 해양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할 것임. 특히, 씨월드(Sea World)와 Sanctuary Cove(Gold Coast 사람들의 개인 선착장)는 호주에는 어떤 해양 동물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내륙지방과는 다른 해양도시의 일상은 어떤지 배워볼 수 있음. 결국, 서울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는 쉽게 만나보지 못할 광경은 단순 학업 측면의 학습이 아닌, 해양도시의 생활양식을 엿보게 됨으로써 땅과 강, 그리고 바다가 공존하는 Gold Coast는 어떤 도시적 양상을 띠지를 알아보게 됨.

3. 세계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의 형성

위 1, 2에서 언급했듯,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Gold Coast에서만 생활함. 따라서 인솔 교수님이나 이 연수와 관련 없는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아닌 호주 Gold Coast에 있는 사람

들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과의 교류가 될 것임. 팀은 Gold Coast에서 2박 3일 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인과 얘기도 해보며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직접 느낌으로써 이 연수가 세계를 대하는 팀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형성해줄 것임. 결국, 팀원들이 갖고 있던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호주 Gold Coast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Gold로 바꾸는 것이 팀의 궁극적인 목표임.

II. 'Where Rivers and Oceans Meet' 팀 학생 명단

| 번호 | 학부 | 학번 | 성명 | 비고 |
|----|--------|-----------|-----|---------------|
| 1 | 간호학과 | 201211701 | 엄미연 | 010 9948 7224 |
| 2 | 외식조리학부 | 201311809 | 김다슬 | 010 2434 4783 |
| 3 | 철도경영학과 | 201410376 | 오승준 | 010 8727 9503 |
| 4 | 운송물류학과 | 201410453 | 이도현 | 010 7182 5626 |

III. 활동 내용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Gold Coast 내에서 주로 진행됨. 2015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2박 3일 동안 호주의 도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현지 생활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의 Gold화'라는 목표 하에 움직이게 됨. 세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5년 1월 24일(토)

팀 프로젝트의 첫째 날로서 주로 Movie World¹⁾에서 진행됨. Movie World는 테마파크로서 단순히 놀이기구를 즐기며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워너 브라더스의 영화들을 주제로 만든 곳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됨.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화와 관련한 체험이나 만들어지는 방식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세계적인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은 물론, 그것을 즐기러 오는 다양한 외국 및 현지 관광객들과 기회가 되면 영화라는 공통사에 대한 얘기를 해봄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낼 기회가 있음.

2. 2015년 1월 25일(일)

둘째 날인 이 날에는 해양 도시인 Gold Coast 사람들의 생활을 간단히 엿보고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 스카이 포인트 방문, 서퍼스 페리다이스 및 야시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음.

가. Sanctuary Cove

Sanctuary Cove는 개인 선착장이 늘어서 있는 곳임. 우리나라에도 부산 같은 해양 도시들이 있지만 호주의 대표적 해양 도시인 Gold Coast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할 수 있게 됨. 또한, 대부분 내륙 지방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곳 사람들이 사는 생활양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됨.

나. Sky Point

Sky Point는 호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전망대로써 230m 상공에서 Gold Coast의 지형적 구조를 파악하기에 가장 탁월한 곳임. 위에서 언급 및 [붙임 1]에서 참고되었듯이, Gold

1)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Warner Bros. Entertainment, Inc.)는 워너 브라더스 픽처스(Warner Bros. Pictures, Inc.)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의 영화 배급 및 제작 회사임. 워너 브로스라고도 불리며 할리우드에서 메이저 영화사로 손꼽히는 영화사임.

Coast는 지형적 특성상 땅, 강, 바다가 한 데 어울리는 접점지이기 때문에 이 Sky Point는 Gold Coast가 어떤 지형적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보게 해줄 것임. [붙임 2]를 참고하였을 때, Sky Point에서는 해변뿐만 아니라 시티를 가로지르는 네랑강이 만들어낸 조그만 여러 섬들이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음. 이는 Sanctuary Cove와 더불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도시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임. 또한, 팀 프로젝트의 이름과 가장 걸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것들이 한 데 모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임.

다. Surfers Paradise

Surfers Paradise는 Gold Coast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해양 문화가 존재하는 곳임. 이곳에서 서핑을 하고 해변에서 노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문화와 호주의 해양 문화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이곳 역시 호주 현지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이는 세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세계관을 넓힐 기회가 될 것임. 또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나 사람들의 작은 공연 등은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현지에서의 적응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

라. Night Market

Night Market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임. 호주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저녁 5시나 6시쯤에 문을 닫는 것이 특징인데, Gold Coast에서는 수, 일요일마다 이런 야시장을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매일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일 보는 시내의 길거리 모습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됨. 또한, 길거리 작은 공연이나 해양 도시에 맞는 수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곳만의 음식을 접해보므로써 다른 나라의 해양 음식도 경험해 볼 기회가 될 것임. 이는 다른 나라의 특징을 더 알아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예상됨.

3. 2015년 1월 26일(월)

팀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로서 주로 Sea World를 방문하고 브리즈번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정됨. Sea World는 쉽게 말해 해양 동물을 만나보고 체험해보는 하나의 타운임. 돌고래 쇼, 수족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래가 헤엄치는 것들을 보며, 우리나라 내륙 지방 사람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던 해양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음. 또한, 직접 볼 기회가 적은 펭귄, 북극곰 같은 동물들을 직접 봄으로써 그들의 원래 살아오던 곳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음. 이런 활동을 통해 단순한 동물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 후에도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뿐 아닌 다른 생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IV. 기대 효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수립했던 목표를 이룸으로써 팀의 궁극적인 목표인 '현지 생활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의 Gold화'를 적정 수준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이 목표의 핵심은 현지에서의 적응과 새로운 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발전된 학습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체험들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학습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예상됨. '남는 건 사진뿐이다'가 아니라 짧고도 긴 72시간의 활동은 팀원이 눈만 뜨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에 직접 관심을 가져 조사해보고 체험함으로 인해 그곳에서 얻은 것을 우리 몸속에 간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팀원들이 철도물류대학, 외식조리대학 등에서 학습을 하므로 자주적으로 계획한

이동 수단, 직접 가서 맛보는 새로운 음식을 통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을 조금이라도 심화시킬 것임. 더불어, 이러한 연장된 학습은 우리 학교의 발전전략 (GPS: Globalization, Partnership, Specialization)과 부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둬으로써 팀원들이 귀국 후 학교에 돌아와서 생활할 때에도 글로벌 마인드가 동시에 작동될 것이라 기대됨.

V. 지원금 사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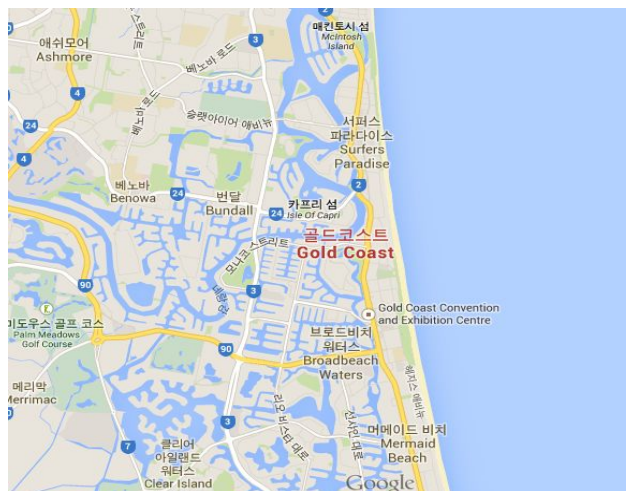
| 항목 | 내역(산출 기초) | 금액(단위: AUD) |
|-----|--|-------------|
| 숙박비 | 아일랜드 백팩커 1박 1인당 30 AUD 기준 | 240 |
| 입장료 | Sky point 1인당 22 AUD 기준 | 88 |
| | Movie world & wet and wild & sea world 1인당 99 AUD 기준 | 396 |
| 기타 | 야시장 | 76 |
| 합계 | | 800 |

VI. 추진일정

| 일자 | 시간 | 일정 | 비고 |
|------|-------------|----------------------------|-------------------------------------|
| 1.24 | 9:00-10:00 | 숙소 도착 | 2박 60*4인=240 AUD |
| | 10:00-17:00 | Movie world & wet and wild | 99*4=396 AUD 변경될 수 있음(sea world 포함) |
| | 17:00-20:00 | 저녁식사 | Surfers paradise hurricane's grill |
| | 20:00-21:00 | 숙소 복귀 | |
| 1.25 | 10:00-13:00 | Sanctuary Cove | george's paragon seafood restaurant |
| | 13:00-15:00 | 스카이 포인트 | 22*4=88 AUD |
| | 15:00-18:00 | Surfers paradise | |
| | 18:00-22:00 | 저녁식사&야시장 | 19*4=76 AUD |
| | 22:00-23:00 | 숙소 복귀 | |
| 1.26 | 09:00-15:00 | sea world | |
| | 15:00-17:00 | 브리즈번 복귀 | |

[붙임 1] Gold Coast의 지형적 모습(지도2)

'네랑강'을 중심으로 시타가 형성되어 있고 곳곳이 작은 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지 못할 해양도시의 특징이 될 것임.



[붙임 2] 'Sky Point'에서 볼 수 있는 광경³⁾

호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본 모습임.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 쪽에 해변이 있고, 뒤에는 네랑강이 시티를 가로지르며 작은 섬 여러 개를 형성한 지형적 모습을 엿볼 수 있음. 실제로 Sky Point 방문 시 설명을 듣고 눈앞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됨.



2015. 01. 04.

팀 장 오승준 (서명)

지도교수 백성주 (서명)

3) 출처: 네이버 블로그(hihojookim님의 블로그)

TEAM PROJECT 활동 결과보고서

I. TEAM PROJECT 목적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Where River and Ocean Meet'임. 프로젝트 이름(팀명)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팀이 주로 활동하게 될 호주의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지형적 특성상 강(네랑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임.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음.

1. 한국인이 새로운 세계를 만남

이 프로젝트가 주로 행해질 곳은 위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Gold Coast임. Gold Coast라는 지명의 유래는 따로 있지만, 지형적 특성을 탐구하였을 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점적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음. 따라서 지명의 특성을 살려 한국인인 팀원들이 호주라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현장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음. 또한, 연수를 위해 사전 조사하는 내용들은 연수 및 팀 프로젝트를 몸 안으로 효율적으로 흡수시킬 원동력이 될 것임. 결국,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을 통해 자기 주도적 준비와 시행은 호주가 아닌 다른 외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 시에도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원활하게 하게 해줄 것임.

2. 팀원들의 학습의 연장선 및 새로운 학습의 디딤돌

가. 학습의 연장선

이 프로젝트는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처럼 짜여진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직접 현지를 알아보고 계획하여 팀원들만의 목적지를 두고 움직이는 것임. 따라서 장소의 이동, 식사, 숙박 등을 모두 스스로 계획하게 됨.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 현지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알아보고 직접 타봄으로써 우리나라와 어떤지 비교할 수 있고, 이러한 비교는 양국의 교통 체계가 어떤 보완점을 가져야 할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됨.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먹어봄으로써 타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지금껏 배운 것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됨.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팀원들끼리 관광이 아닌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나. 새로운 학습의 디딤돌 (해양 도시 및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탐구)

Gold Coast는 지명에 맞게 해양과 관련이 깊은 도시임. [붙임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해양 도시로서 해변이 늘어서 있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서퍼들의 장소이기도 함. 이곳에서 해양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할 것임. 특히, 씨월드(Sea World)와 Sanctuary Cove (Gold Coast 사람들의 개인 선착장)는 호주에는 어떤 해양 동물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내륙지방과는 다른 해양도시의 일상은 어떤지 배워볼 수 있음. 결국, 서울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는 쉽게 만나보지 못할 광경은 단순 학업 측면의 학습이 아닌, 해양도시의 생활양식을 엿보게 됨으로써 땅과 강, 그리고 바다가 공존하는 Gold Coast는 어떤 도시적 양상을 띠지를 알아보게 됨.

3. 세계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의 형성

위 1, 2에서 언급했듯,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Gold Coast에서만 생활임. 따라서 인솔 교수님이나 이 연수와 관련 없는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아닌 호주 Gold Coast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과의 교류가 될 것임. 팀은 Gold Coast에서 2박 3일 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인과 얘기도 해보며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직접 느낌으로써 이 연수가 세계를 대하는 팀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형성해줄 것임. 결국, 팀원들이 갖고 있던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호주 Gold Coast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Gold로 바꾸는 것이 팀의 궁극적인 목표임.

II. 'Where Rivers and Oceans Meet' 팀 학생 명단

| 번호 | 학부(과) | 학번 | 성명 | 비고 (연락처) |
|----|--------|-----------|-----|---------------|
| 1 | 간호학과 | 201211701 | 엄미연 | 010 9948 7224 |
| 2 | 외식조리학부 | 201311809 | 김다슬 | 010 2434 4783 |
| 3 | 철도경영학과 | 201410376 | 오승준 | 010 8727 9503 |
| 4 | 운송물류학과 | 201410453 | 이도현 | 010 7182 5626 |

III. 주요 활동 및 성과

1. 전공 관련 학습: 팀 프로젝트 일정을 통한 학습

이번 호주에서의 연수는 호주에서 진행된 것이고 호주 내의 학교 (University of Queensland)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연수 일정 중 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단순히 영어와 관련한 학습이 아니라 직접 계획을 짜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송대학교에서 배우는 각자의 전공에 대한 연장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임. 우리 팀원은 철도물류(오승준, 이도현 학생), 외식조리(김다슬 학생), 간호(엄미연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자 배워온 것이 달랐지만, 이 세 가지의 전공을 대체적으로 아우르는 활동을 할 수 있었음. 다음의 내용에서 분야별로 어떤 점을 배웠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가. 철도물류와 관련한 학습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나라에서 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이 중요한 요소임. 특히,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차, 버스 외에 트램, 페리(City Cat) 등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교통수단을 타 봄으로써 대중교통(여객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음.

우선, 버스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역(station)마다 플랫폼이 나뉘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버스만이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접할 수 있는 'TransLink'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갈 여정을 정하고 어떤 버스를 통해 갈 수 있는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음. 버스 외부 및 전용 도로 전경은 다음 <사진 1>과 같음.

4) 호주의 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모든 교통수단(기차, 버스, 여객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여정에 따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교통수단의 시간표도 제공됨.



<사진 1> 퀘즐랜드 주 버스 외부 전경 및 전용도로

학교에서 시내로 나갈 때 버스를 직접 타다보니 우리나라보다 다소 선진화된 문화를 볼 수 있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저상버스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탈 수도 있지만, 버스 내부 자체 공간이 협소하여 실제로 타기가 어려운 실정임. 하지만, 이곳의 버스는 내부에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어 접이식 의자를 통해 평소에는 일반 승객이 앉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탑승하면 의자를 접어 그들에게 자리를 바로 제공함. 실제로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느낌. 우리도 이런 점을 본받아 바쁜 대중교통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함.



<사진 2> 퀘즐랜드 주 버스 내부 모습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철도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편임.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KTX(고속철도) 개통 이후 소위 '반나절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됨. 또한, 도심 속에는 지하철이 다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많은 노선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호주는 이런 지하철 개념의 시스템은 없었고, 기차와 트램이 있었음. 기차는 지하철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새마을호 수준으로 멀지 않은 거리의 도시를 이동할 때 편리했음. [<사진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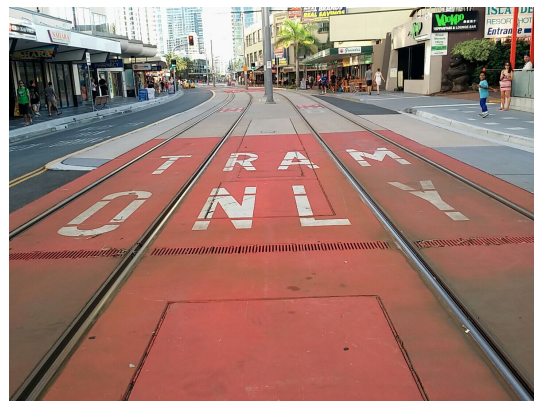
특히, 이곳의 철도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리기 전에 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림으로써 승, 하차할 수 있음. 이는 불필요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팀 프로젝트가 시행된 Gold Coast에서는 트램⁵⁾ (Tram: 노면전차)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를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

5) 도로면 중앙에 궤도를 설치하여 노면교통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 (인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로 달리는 철도, 정민사, 2013, p.81)

이 두 형태의 철도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는 편리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단거리 목적지를 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 호주가 넓은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빠르고 친환경적인 철도 시스템이 좀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사진 3> 퀸즐랜드 주 기차 (Gold Coast Line) 및 출입문



<사진 4> 퀸즐랜드 주, Gold Coast의 트램(Tram)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강이 있는 것에 따라 크고 작은 페리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었음. 팀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곳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은 학교가 있는 브리즈번 (Brisbane)에는 브리즈번 강 위를 다니는 'City Cat'이라는 페리를 이용하여 다닐 수 있음. 버스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빠르고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Gold Coast에서는 직접 이용해보지는 못했지만, Gold Coast를 가로지르는 네랑강을 이용하여 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집마다 작은 개인 선착장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음.



<사진 5> Gold Coast 내 주거지역의 선착장 모습

나. 외식조리와 관련한 학습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의(衣), 식(食), 주(住)'가 있음. 그 중 하나인 '식'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며, 같은 재료라도 그 나라만의 특색으로 변하여 접하기도 함. 우리 팀원은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호주 현지에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음식을 접함으로써,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로 하였음.

학교에서는 기숙사 밥을 통해 호주의 음식을 맛 봤지만,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직접 접하는 것은 이번 팀 프로젝트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첫째 날에 Harbour Town에서는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분위기 속 다른 메뉴를 체험할 수 있었음. [III. 2. 가. 1) 참고] 또한,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서 먹거리를 사 먹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짐을 느낄 수 있었음. 이 외에도 호주의 유명한 레스토랑인 Hurricane's Grill, Pancake Paradise의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하기도 하면서 호주만의 식문화가 어떤지를 알 수 있었음. [III. 2. 나. 5) 참고] 또한, 길거리에 늘어선 음식 점들은 실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도 여러 테이블을 배치하여 접근성도 높이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밖의 풍경과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깨달음.

다. 간호와 관련한 학습

현지에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전임. 이번 연수를 통해서 (팀 프로젝트 기간 이외에도) 아픈 사람이 몇몇 있었지만 대학 내의 병원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안전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시설들을 통해 몸이 약한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버스의 경우 부분적으로 접이식 의자를 도입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버스 전체를 기울여서 승객을 태운 후, 접이식 의자를 접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게다가, 이에 대한 시민의식도 본받아야 함. 간혹 소수의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동 중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하자, 앉아있던 몇몇 승객이 바로 일어나서 의자를 접어주고 그 승객이 잘 탑승하도록 도운 것을 보게 됨. 시스템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됨.



<사진 6> 버스 내부의 휠체어 자리 및 안전시설

팀 프로젝트 기간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게 됨. 특히 둘째 날 방문한 Wet 'n' Wild의 경우 다양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사고가 날 수 있음.

하지만 이곳은 기구 탑승 전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표지판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고, 우리 같은 외국인도 쉽게 알게 하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인데, 한 순간도 안전에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함. 이 외에도 바다인 Surfers Paradise와 워터파크에 안전요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음을 느끼고 옴. [사진은 촬영할 수 없었음.]

2. 새로운 학습: 팀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학습

일정에 따른 학습은 팀 프로젝트 기간(2015. 01. 24. - 2015. 01. 26) 중 실제로 활동한 내용과 사진을 바탕을 작성됨. 이전에 제출된 계획서에 준하는 활동을 하였으나, 날씨나 교통편 등 현지 사정의 이유로 순서가 다소 변경되었음. 다음은 일시별 활동 내용임.

가. 2015년 1월 24일 (토)-Day 1

Gold Coast에서 팀 프로젝트를 시행한 첫째 날로서, 학교가 위치한 Brisbane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함. 학교에서 기차를 타는 Central 역까지 이동한 후, Gold Coast (Railway) Line⁶⁾ 열차를 타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이동함.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Harbour Town'과 호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동물들을 알아볼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Sea World'를 방문함.

1) 11:00 Harbour Town, 12:00 Lunch Time

기차를 타고 Gold Coast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Harbour Town임. Gold Coast가 해양 지역이고 항구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인 듯함. 해양 도시답게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서핑 용품이나 간단한 장비들을 팔기도 하였고, 다른 스포츠 웨어들을 볼 수도 있었음. 또한, 하나의 큰 건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town'이라는 이름에 맞게 마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 [<사진 7> 참고] 한 시간 정도 둘러본 뒤, 12시쯤에는 Harbour Town 내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음. 역시 우리나라와 다르게 스테이크, 파스타, 햄버거를 주로 팔았으며, 싸지 않은 가격인 만큼 큰 점시에 많은 양으로 배부리 먹을 수 있었음. 또한, 건물 안에서만 먹는 것이 아닌, 주로 테라스 같은 형태로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음.(우리 팀 역시 야외에서 먹음) [<사진 8> 참고]



<사진 7> Harbour Town 입구

6) 호주의 Brisbane에서 Gold Coast를 잇는 Rialway line. 매일 2만 5천명 이상의 통근자를 태움. [우리나라의 경부선, 호남선 등과 같은 개념]



<사진 8> Harbour Town 식당 형태 및 먹은 점심

2) 13:45 Sea World

Harbour Town에서 점심을 먹은 후, (예정과 다르게) Sea World를 방문함. Sea World는 호주의 다양한 해양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다사자와 물개의 쇼, 돌고래 관찰, 다양한 바다 속 생물 관찰,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형태로 동물들을 접해볼 수 있는 곳임. 우선,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지도를 통해 위치 확인과 쇼 타임을 알아둔 후 걸으며 곳곳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었음.



<사진 9> Sea World 입구 및 팀 단체 사진

Sea World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돌고래나 물개 같은 해양 동물들을 비교적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임. 돌고래의 경우 배를 타고 나가거나 해변에서 멀리 돌고래들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일정한 공간에 돌고래를 두어 지나가면서 쉽게 볼 수 있었고, 원하는 경우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직접 돌고래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공간도 있었음. 해양 도시인 만큼 해양 동물들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동물들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됨.

또 다른 특징은 정해진 시간마다 진행되는 물개 쇼임. 단순히 물개들이 나와서 쇼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물개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물개들이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임.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흥미로웠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만한 곳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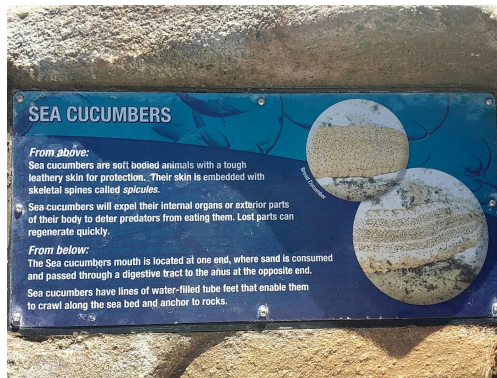


<사진 10> Sea World 내의 물개 쇼

마지막으로, 바다 생물들을 가져다가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한 공간도 인상 깊었음. 물론, 생물들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들거나 잡아서 만지는 것은 제한되었고, 만져도 될 만한 부위를 설명하거나 주의를 줌으로써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음.



<사진 11> Sea World에서 만져볼 수 있는 해양 생물들(위) / 안내문(아래)



3) 17:40 숙소(Islanders Resort) 도착 및 Surfers Paradise 방문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Gold Coast의 Surfers Paradise 근처에 있는 숙소로 옴. 숙박은 백팩커의 형태로 6인이 한 방에 묵는 도미토리 형식이었음.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시설물이 호텔이나 모텔에 비해 낮은 수준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작은 수영장 등 젊은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하는데에 적합한 형태임.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우리 팀은 근처 마트에 들러서 먹거리를 구입하고 숙소 내에서 저녁을 해결함.

숙소는 Surfers Paradise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Surfers Paradise는 길게 늘어선 해변과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음식, 길거리 볼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어우러진 곳임. 숙소에는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밤바다를 볼 수 있었고, 여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나. 2015년 1월 25일 (일)-Day 2

Gold Coast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날이었음. Q1 타워의 Sky Point가 그 전망대인데, 주경과 야경 모두가 훌륭한 경치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전과 저녁 두 번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여 보다 많은 전망을 볼 수 있었음. 또한, 워터파크인 Wet 'n' Wild는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만한 최적의 장소였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몸을 가볍게 담그거나 다양한 기구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

1) 09:00 Sky Point 1 (Q1 Tower): Daytime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Sky Point에서의 전망은 햇빛에 비춰진 바다와 비치 그리고 그 뒤의 네랑강(운하)을 명확히 볼 수 있었음.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곳곳에 망원경을 통해 먼 곳까지 바라보게 하는 시설이 있었음. 역사에 따르면, 골드코스트는 446km에 이르는 운하가 있고 이것은 이탈리아의 항구도시인 베니스보다 9배 넘게 긴 것이라고 함. 1950년부터 골드코스트에 생겨난 이 운하는 계속해서 부딪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8만여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음. 이 외에도 남극과 몇 km가 떨어져 있는지 등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이곳이 네랑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사진 12> Sky Point에서 바라본 골드코스트 주간 전경 (1): Surfers Paradise

7) 호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77층(223m)의 건물. 주상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Observation Deck는 식사까지 가능한 Q1타워의 전망대임. [참고: <http://www.skypoint.com.au> (영문)]



<사진 13> Sky Point에서 바라본 골드코트스 주간 전경 (2): 네랑강 및 주거지

2) 11:00 Wet 'n' W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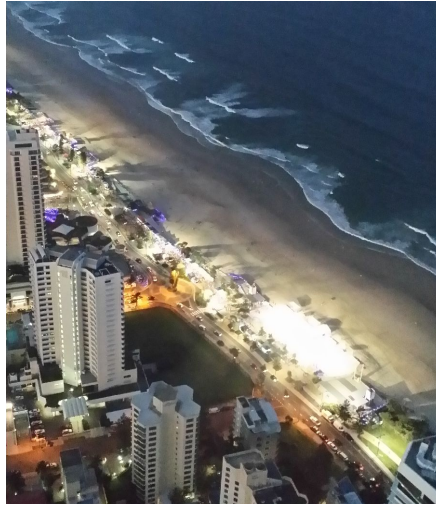
워터파크인 Wet 'n' Wild는 소규모 풀장부터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기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임. 규모별로 시설이 갖춰져 있고 화장실, 샤워실은 물론 곳곳에 식당이나 음료수 가판대까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음. 덕분에 젊은이들만이 오는 곳이 아닌 남녀노소 가족단위의 그룹들도 많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워터파크의 경우 팔찌 형태에 현금을 충전하여 워터파크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곳은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않아 떡거리를 사 먹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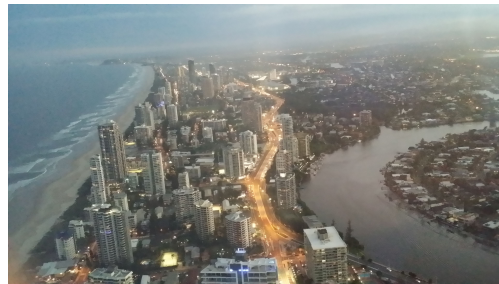
<사진 14> Wet 'n' Wild

3) 19:00 Sky Point 1 (Q1 Tower): Night

야경을 보기 위해 다시 오른 Q1 Tower에서는 아침에 봤던 전망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음. Surfers Paradise는 밤바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과 그 앞의 도로 가에서 매주 수, 일요일 마다 열리는 Night Market이 한창 열리고 있어서 밤에도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의 활기를 볼 수 있었음. 또한, 해변 반대편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불이 켜지고 집으로 향하는 많은 자동차들은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음.



<사진 14> Sky Point에서 바라본 골드코스트스 야간 전경 (1): Surfers Paradise



<사진 15> Sky Point에서 바라본 골드코스트스 야간 전경 (2): 네랑강 및 주거지

4) 19:30 Night Market

호주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저녁 6시쯤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늦은 저녁이나 밤에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음. 하지만 Surfers Paradise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해변과 도로 사이의 인도에 야시장을 열어 매우 다양한 볼거리와 기념품,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해운대의 경우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상시로 있어서 특별히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Surfers Paradise는 몇 번 없는 기회인데다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었음. 호주만의 특징인 부메랑, 페이스 페인팅, 조개 등으로 손수 제작한 팔찌와 목걸이 등은 호주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들이었음. 또한, 야시장 옆 비치에서는 비치 발리볼 경기 매치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려 음. 우리 팀은 야시장을 간단히 둘러본 후 저녁을 먹으러 감.



<사진 16> Night Market at Surfers Paradise

5) 20:10 Hurricane's Grill

허리케인 그릴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임. 그 음식을 경험해보기 위해 우리 팀은 Surfers Paradise 앞에 있는 허리케인 그릴로 가서 음식을 맛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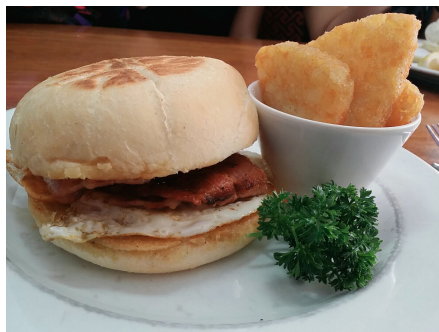
<사진 17> Hurricanes Grill: Steak and Rip

다. 2015년 1월 26일 (월)-Day 3

매년 1월 26일은 '호주의 날'으로 호주의 국경일임. 따라서 이날까지 휴일인 관계로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었으며, 호주의 날인 만큼 호주 사람들이 호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알 수 있었던 날임.

1) 09:00 Pancake Paradise (Breakfast)

이곳은 숙소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서 팬케이크로 유명하다고 하여 방문하였음. 호주의 날이어서 그런지 아침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 팀도 대표적인 음식 몇 개를 먹어봄. 팬케이크가 가장 대표적이며, 매일 아침마다 제공되는 간단한 잉글리시 머핀의 버거도 접할 수 있었음.



<사진 18> Pancake Paradise: Pancakes and Burgers

2) 12:00 Movie World

무비월드리는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테마파크로서, 전 세계의 유명한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곳임. 'Warner Brothers'라는 유명한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테마파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왔으며, 특히 퍼레이드 쇼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 잡음. 또한, 테마파크 이기는 하지만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트랙션을 비롯하여 길 거리에서는 작은 공연이나 자동차 쇼도 볼 수 있었음.



<사진 19> Movie World

2) 17:00 Brisbane으로 이동

무비월드를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팀은 학교가 있는 브리즈번으로 돌아왔음. 모든 팀 프로젝트 활동이 끝남.

3. 다양한 학습을 통한 성과

우리 팀은 팀 프로젝트 일정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중간 중간에 우리 팀원들이 각자 배우는 전공과도 관련된 것을 봄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었음.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팀원들끼리 도우며 생활하는 것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좋은 경험이었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광경을 보고,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을 비롯하여 그 속에서 우리 팀원들의 전공과 관련한 사항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팀 프로젝트가 새로운 경험과 전공 학습에 대한 심화를 이끌어왔다고 하기에 충분함. 우리 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어느 새로운 곳에 가도 스스로 잘 적응해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었음. 또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세계를 무대로 보는 견문과 (3일 간 새로운 곳을 방문한 것과 같이)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계를 보는 글로벌 마인드의 Gold화”를 달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

IV. 소감 및 건의사항

소감 및 건의사항은 개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개인별로 작성하였음. 순서는 학번 순임.

1. 엄미연 학생

가. 소감

올해 경시대회는 기존 경시대회와 다르게 총 3회의 시험을 거쳐 선발되어 더욱이 간절함이 컸고, 총 12일의 짧은 연수였기에 아쉬움과 여운이 많이 남았음. 또한 말라야 대학과 이번 퀸즈랜드 대학 두 군데 모두를 연수를 다녀온 학생으로서 학교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느낄 수 있었음. 짧았지만 2주 동안 퀸즈랜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호주의 정서, 문화,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매 수업마다 현지인, 퀸즈랜드 대학생들, 다른 나라에서 연수를 온 학생들과 함께해 배움의 즐거움이 배가 된 듯함. 특히, 이번 연수에서 현지인들과 호주의 특색 있는 섬과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음. 이전에 다녀왔던 말레이시아 연수에서는 주말에 한 번 관광지를 다녀왔는데 현지인도 1명밖에 없었고, 하루는 너무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하지만 이번 연수에는 Lonepine 동물원, Stradbroke island, Brisbane city tour를 원어민 선생님과 UQ학생들과 함께 다녀왔고, 이를 통해 현지인들만을 통해 알 수 있는 호주만의 특색들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음.

나. 건의사항

기존 영어 경시대회와 다르게 올해는 토익, 영어 면접 그리고 한국어 면접으로 총 3차에 걸쳐 연수생을 뽑은 점이 가장 만족스러움. 토익으로만 연수생을 선발할 경우 한 과에만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임. 또한 토익 성적으로 나누어 영어 면접을 진행한 결과 토익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던 듯함. 물론 토익 점수가 높지만 떨어진 사람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이기도 하고 이 점을 이용해 다음 경시대회에서 고의로 토익 점수를 낮게 받는 등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토익 성적으로 나누어 영어 면접을 보되 그룹 별 percentage를 다르게 분배해 뽑으면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한 그룹 내에서 면접자가 많이 참가하지 않아 붙은 사람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김다슬 학생

[개인보고서 참고]

3. 오승준 학생

가. 소감

이번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해외연수는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중 하나임. 특히, 올해 우송대학교에 처음 온 1학년 시절에 여러 학과의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임. 해외연수 일정 중 UQ에서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기숙사와 식당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음. UQ의 수업 또한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을 다룸으로써 좀 더 넓은 폭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또한, Speaking과 Listening 등 실질적인 영어를 다룸으로써 해외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호주 학교 측에서 제공한 다양한 Activities(Lone Pine Koala Sanctuary, Stradbroke Island 방문)들은 참여자 전원과 UQ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아울러, 수업 시간에 배운 호주의 언어, 문화, 음식 등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함.

연수 기간 동안 진행된 팀 프로젝트 역시 큰 경험이었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지 우리 팀원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하여 지역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자주적인 활동이었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잘 활용하리라 기대됨. 특히, 식사와 숙소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현지의 물가와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이것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마음도 길러주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번 연수처럼 좋은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영어는 물론이고 제2외국어까지 미리 몸에 익여놔야겠다는 생각을 함.

나. 건의 사항

이 해외연수는 모의토익(1차 시험), 외국인 면접(2차 시험), 한국인 면접(3차 시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나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되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외국

인 면접이나 한국인 면접처럼 임의로 조(면접 조)가 배정되는 때에는 점수 산출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낌.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면접 조마다 평가하는 원 어민 교수님들이 달랐는데, 이는 같은 점수를 받고도 자신의 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더 낮은 점수의 학생이 통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따라서 이 방식에 대한 발전이 필요해 보임. 이 이외의 학교 생활이나 수업, 프로젝트의 구성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됨.

4. 이도현 학생

가. 소감

브리즈번이라는 생소한 도시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University of Queensland 라는 새로운 대학을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음. 주말의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호주의 기념일과 겹치게 되어 그들의 축제문화를 엿볼 수 있어 좋았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학교 내에 의료시설이 있어 중간에 한번 감기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편리한 의료시설을 통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음. 또한, 기숙사는 조금 노후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만족할 수 있었음.

나. 건의사항

전체적인 연수 기간이 대체로 짧다고 생각함.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다가 수업으로 인해서 브리즈번을 좀 더 많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 팀 프로젝트는 2박 3일 간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에 비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기숙사는 만족스러웠으나 수건, 비누의 제공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임.

V. 기대 효과 및 추후 계획

1. 기대 효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수립했던 목표를 이룸으로써 팀의 궁극적인 목표인 '현지 생활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의 Gold화'를 적정 수준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이 목표의 핵심은 현지에서의 적응과 새로운 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발전된 학습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체험들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학습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예상됨. '남는 건 사진뿐이다'가 아니라 짧고도 긴 72시간의 활동은 팀원이 눈만 뜨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에 직접 관심을 가져 조사해보고 체험함으로써 그곳에서 얻은 것을 우리 몸속에 간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팀원들이 철도물류대학, 외식조리대학 등에서 학습을 하므로 자주적으로 계획한 이동 수단, 직접 가서 맛보는 새로운 음식을 통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을 조금이라도 심화시킬 것임. 더불어, 이러한 연장된 학습은 우리 학교의 발전전략 (GPS: Globalization, Partnership, Specialization)과 부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둬으로써 팀원들이 귀국 후 학교에 돌아와서 생활할 때에도 글로벌 마인드가 동시에 작동될 것이라 기대됨.

2. 추후 계획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임. 첫째, 타지에서의 자립성임. 앞서 언급했듯, 이번 팀 프로젝트는 여행사나 인솔 담당자 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우리 팀원 4명이 계획하고 결정하여 이루어진 시간임. 이는 우리 팀원 모두에게 새롭게 방문하는 외국에서의 자립성을 길러주었고, 교통, 숙박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줌. 앞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든,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를 맡든 간에 팀원들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것임. 둘째, 세계에 대한 마음가짐이 향상된 것임. 물론 호주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팀원도 있고 아닌 팀원도 있지만, 이번 경험은 호주의 문화와 호주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

식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었음. 이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점 등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문화와 우리나라의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됨. 따라서 앞으로도 다른 새로운 문화나 생활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꾸준한 탐구가 이루어질 것임.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영어나 기타 능력을 키우고 몸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할 것임.

VI. 지원금 사용 내역

| 구분 | 항목 | 지불액 | 지불 날짜 | 비고 |
|---------------|-----|------------|---------------|--|
| 팀프로젝트 활동비용 | 입장료 | 508.00 AUD | 2015/01/13 | ○ 환율: 활동비용 지급 당일 (2015/01/09)에 따름 ○ 날짜: 현지 기준임 |
| | 숙박비 | 256.00 AUD | 2015/01/24 | |
| | 식비 | 73.00 AUD | 2015/01/24-25 | |
| | 기타 | 13.00 AUD | 2015/01/24-26 | |
| 합계 | | 850.00 AUD | N/A | |

* 지원 받은 금액의 환율(AUD)는 지원금 입금 당일인 2015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값임.

* [붙임 1]의 TAX INVOICE의 경우 업체로부터 받은 PDF형식 파일과 종이 형태가 있으나, 모두 문서화하여 보관하되 실제 제출 서류에는 인쇄 형태로 첨부함.

2015. 02. 13.

팀 장 오승준 (서명)

지도교수 백성주 (서명)

[붙임 1]

영 수 증

(기간: 2015/01/24-2015/01/26)

